



연속 작업으로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 동기화 프레스

동기화 PRESS 설비사양

- 라인 구성 : CXS-300 x 1 / CXS-250 x 5
- 라인스피드 : 18~20/min (연속 조건 사용)
- 스트로크 : 330~350mm
- S.P.M : 벡터모터(16~23)
- 자동화 : 단동 ROBOT
- 전기제어 : PLC (미쓰비시)+터치
- 클러치 : 내장형 습식 C/B
- 급유방식 : 세미 순차분배변
- 기브 : WIDE 6면 기브



생산성 증대

- 70~80% 생산성 향상
- 분당 약 18~20개 생산
- 기존 제품 대비 영업 이익 10% 이상 예상



동기화 기술

- 동기화 프레스의 핵심 기술인 벡터 모터 사용
- 다관절 생산 라인을 동기화하는 것이 목표



신규 시장 창출

- 기존 제품의 20% 대체 가능
- 1년에 약 30라인, 180여대의 신규 수요 발생

SIMPAC STORY 2022 VOL. 53

SIMPAC STORY

2022. VOL. 53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
혁신

SIMPAC STORY

2022. VOL. 53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

혁신

통권 53호
발행인 최진식
발행일 2022년 7월 7일
발행처 SIMPAC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3층
기획 및 디자인 큐더스다임 02-6011-0200

사보 담당자
㈜SIMPAC홀딩스
차창열 차장 02-3780-4943 cncha@simpac.com
이도영 대리 02-3780-4923 dylee@simpac.com
㈜SIMPAC 프레스BU
권성안 매니저 032-510-0025 sakwon@simpac.com
남윤기 매니저 032-510-0024 yknam@simpac.com
㈜SIMPAC 메탈BU
선광규 과장 054-271-8724 kgsun@simpac.com
조솔범 사원 054-271-8725 sbcho@simpac.com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최한나 사원 032-590-8905 hnchoi@simpac.com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정기환 부장 054-271-8721 ghjung@simpac.com
김종철 과장 054-271-8931 jckim@simpac.com
㈜리신택비즈
김영철 팀장 061-797-2012 yckim@simpac.com
전화영 사원 061-797-2014 hyjeon@simpac.com
㈜SIMPAC홀딩스 ENG BU
이중서 팀장 032-590-2024 jslee@simpac.com
박기원 과장 032-590-2025 gwpark@simpac.com

함께 만드는 가치



04-11
Focus On
프레스의 기준은 우리가 만든다
지금까지 SIMPAC 프레스BU의 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가치와 경쟁력을 심층 소개

12-13
리더스 Talk
우리 스스로 항상 던져야 할 질문 Why?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 R&D본부
남진한 상무



14-17
주니어보드
새로운 시각으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다
SIMPAC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의 역할과 책임

18-21
SIMPAC News

앞서 나가는 심팩



22-27
현장 속으로
국내 1위의 자부심으로 세계적 프레스를 선사하다
SIMPAC 프레스BU의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도전과 목표



28-33
심팩 인사이드
우리의 경영 혁신과 사업 성장, ERP에서 시작된다
SIMPAC그룹의 차세대 ERP 구축 성과와 목표

34-37
히든 피겨스
전기 자동차 효율 향상의 화룡점정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 BU의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

38-43
탐방 리포트
우공이산이 노력이 만든 인연, 유한정밀
SIMPAC 프레스BU 고객사,
유한정밀 탐방

변화하는 우리



44-47
심팩인의 감성여행
철과 빛의 도시, 포항의 랜드마크 스페이스 워크
위드코로나 시대, SIMPAC인들의 소소한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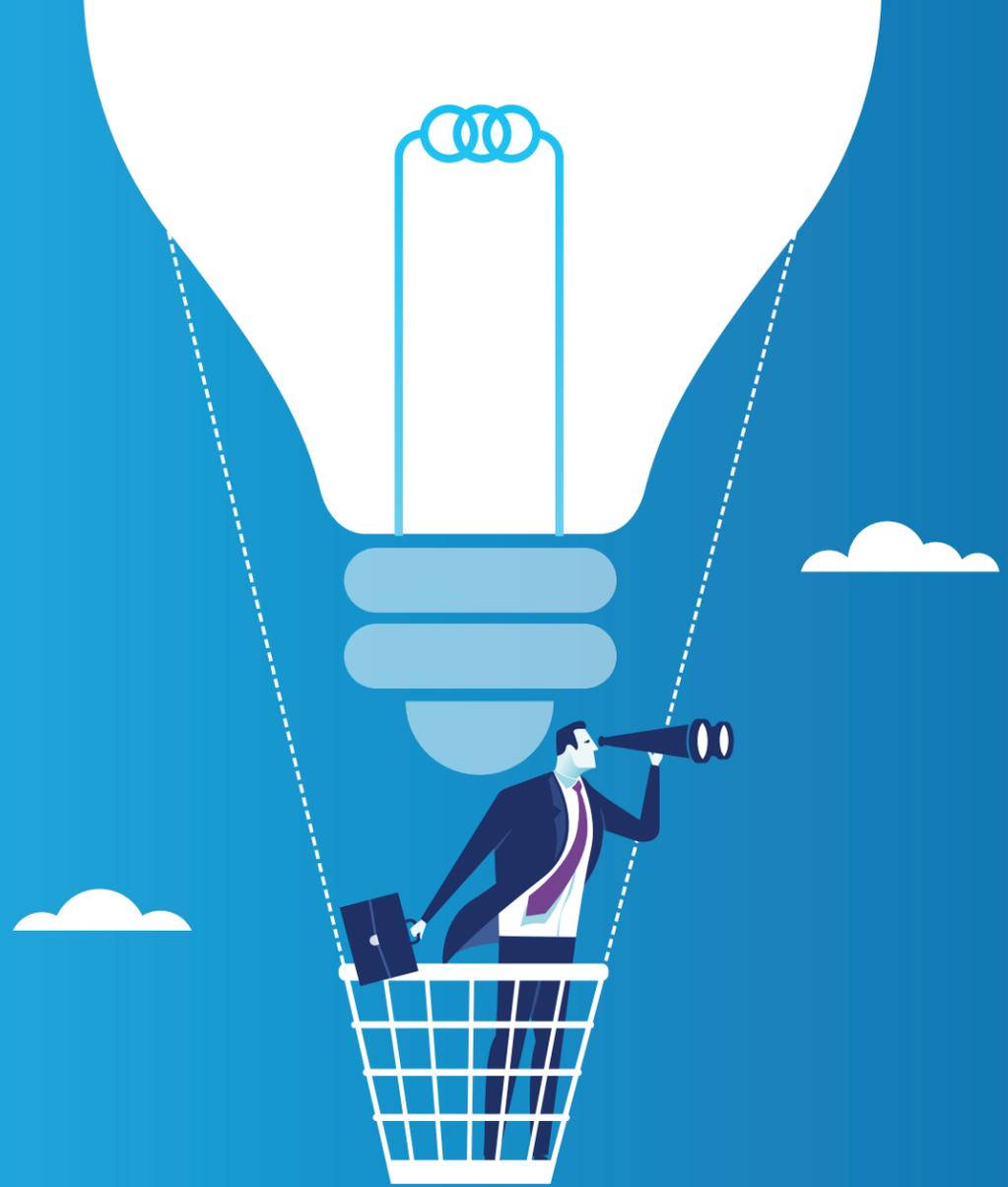
48-51
슬기로운 직장생활
모두를 성장시키는 발전적 갈등 관리
SIMPAC인들의 업무효율화와 긍정적인 조직생활의
가이드 제시를 위한 큐레이션

52-57
심팩 Talk Talk
창의적인 조직문화
창의적인 조직문화와 혁신에 대한 설문조사

58-59
SIMPAC STARGRAM
혁신스타그램
혁신을 주제로 SIMPAC인들의 일상을 공유

60
우리들의 이야기

- HOME
- PRESS BU
- PRODUCTS
- INTERVIEW
- LEADER



우리에게
포기와 타협은 없다

프레스의 기준은 우리가 만든다

SIMPAC은 프레스 단일 품목만으로 50여 년의 역사를 이어왔다. 한 분야에만 집중하며 한 길을 걸어온 결과 국내 프레스 기업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기술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출 수 있었다.

프레스에 SIMPAC의 가치를 담다

국내 프레스 1위

'국내 프레스 최강자'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 데에는 기술력과 품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SIMPAC 프레스BU의 기업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정밀 프로그레시브 가공에 최적인 'MC1-300', 기어 드라이브 시스템 개선을 통한 프레스 속도 향상으로 생산성 증대를 보장하는 'MC1-300', 트랜스퍼 가공 및 프로그레시브 가공에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MC2-400', 고속 운전에도 진동이 없고 오랜 시간 사용에도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신뢰성 높은 링크 메커니즘을 확보한 'MCL2-300' 등 SIMPAC 프레스BU의 제품은 기술적 진화를 끊임없이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간의 기술력을 집적한 동기화 프레스와 서보 프레스를 선보이기에 이르렀다. 동기화 프레스는 현재 3천 톤까지 제작이 가능한데, 이는 글로벌 대응이 가능한 대형 프레스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150톤으로 제작된 서보 프레스는 현재 2천 톤까지 라인업을 구축했다. 국내영업팀 고석지 매니저가 두 제품의 개발 배경에 대해 "생산량 증대라는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라는 말로 설명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성형 조건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설비에서 생산량을 극대화해야 했기에 설비의 진화도 필요했구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동기화 프레스와 서보 프레스가 요구되었고, 우리는 그간 쌓아온 기술력으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고석지 매니저,
전기설계팀 최재형 연구원, 기계설계팀 전성현 연구원,
생산팀 박정호 매니저, 생산팀 유승우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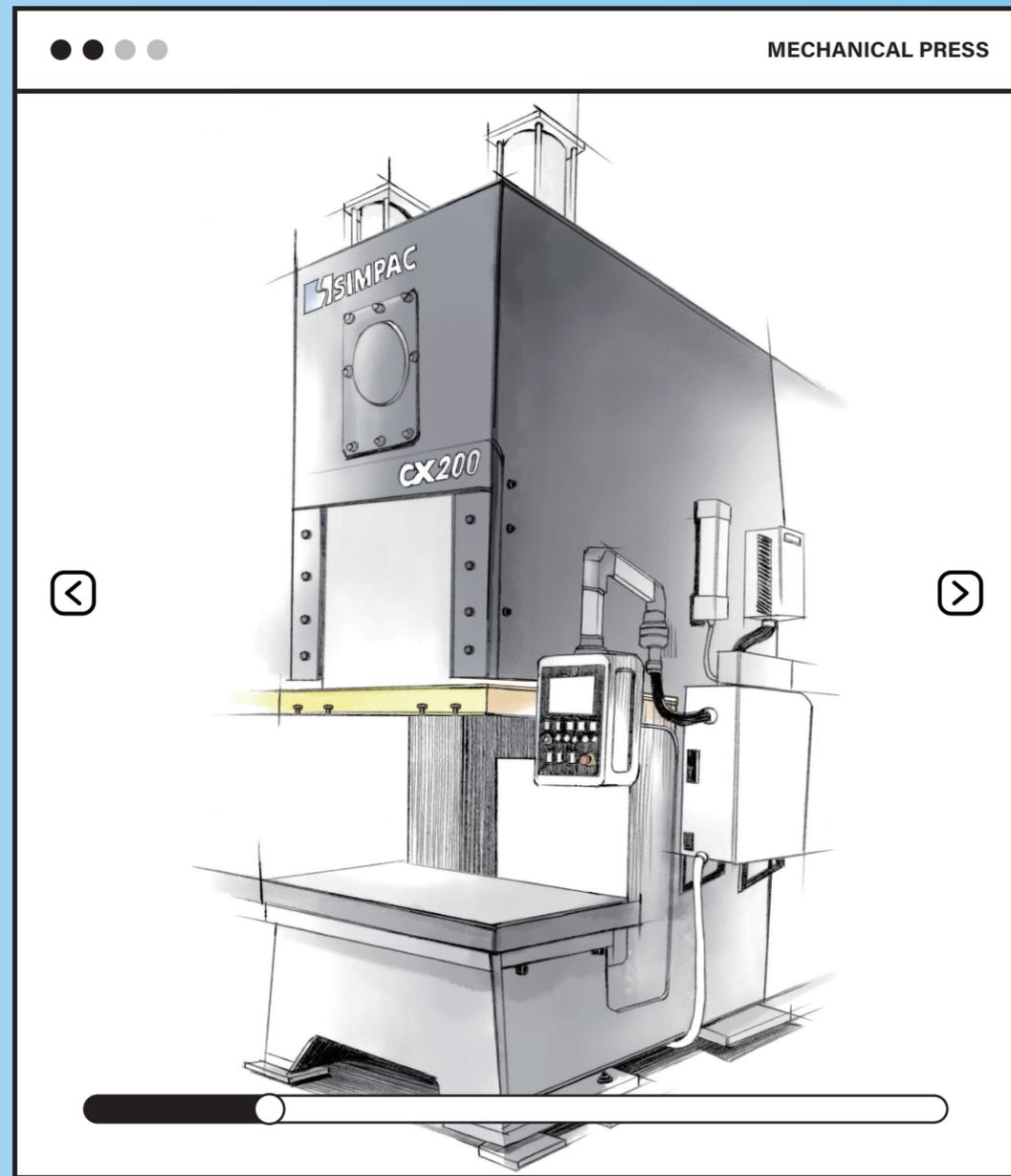
- HOME
- PRESS BU
- PRODUCTS
- INTERVIEW
- LEADER

LEVEL UP

동기화 프레스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다

SIMPAC이 개발한 동기화 프레스는 각각의 프레스가 자기 위치를 '동기화'하여 연속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레스 신기술로 기존 프레스 대비해 생산성을 70~80% 향상시키고 있다.



생산관리 최적화

금형 제작비 및 운송비 1/2로 절감,
제조설비/유틸리티/금형 등의 관리 Point 절감,
긴급물량에 대한 대응속도 향상



초기투자비용 절감

트랜스퍼 프레스라인 대비
저렴한 초기투자 비용



부품 수명 확대

연속 운전에 따른 브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클러치 및 브레이크 수명 확대



생산성 향상

연속 운전에 따른
생산성 확대

혁신적인 기술 개발 지속

동기화 프레스와 서보 프레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생산 공정의 신뢰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서버 제어를 통해서 토크 능력을 확보하고 속도 가변으로 프레스 슬라이드 위치를 자유롭게 제어해서 프리 모션을 구현하는 제품이다. 동기화 프레스는 이송 장치와 프레스 간의 동기화 기능(Synchronization)이 구현돼 프레스는 멈춤 없이 왕복 운동을 반복하고, 이송 장치가 프레스 위치에 동기되어 자동으로 재료를 공급한다. 덕분에 동기화 프레스는 고객의 생산성과 수익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었다. 기계설계팀 전성현 연구원이 동기화 프레스의 강점에 설명했다.

생산 아이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분당 평균 18~23개까지 생산하는 실적을 확보해 고객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 다양한 생산 아이템과 자동화 라인업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식 프레스에 비해 가격이 비싸서 현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사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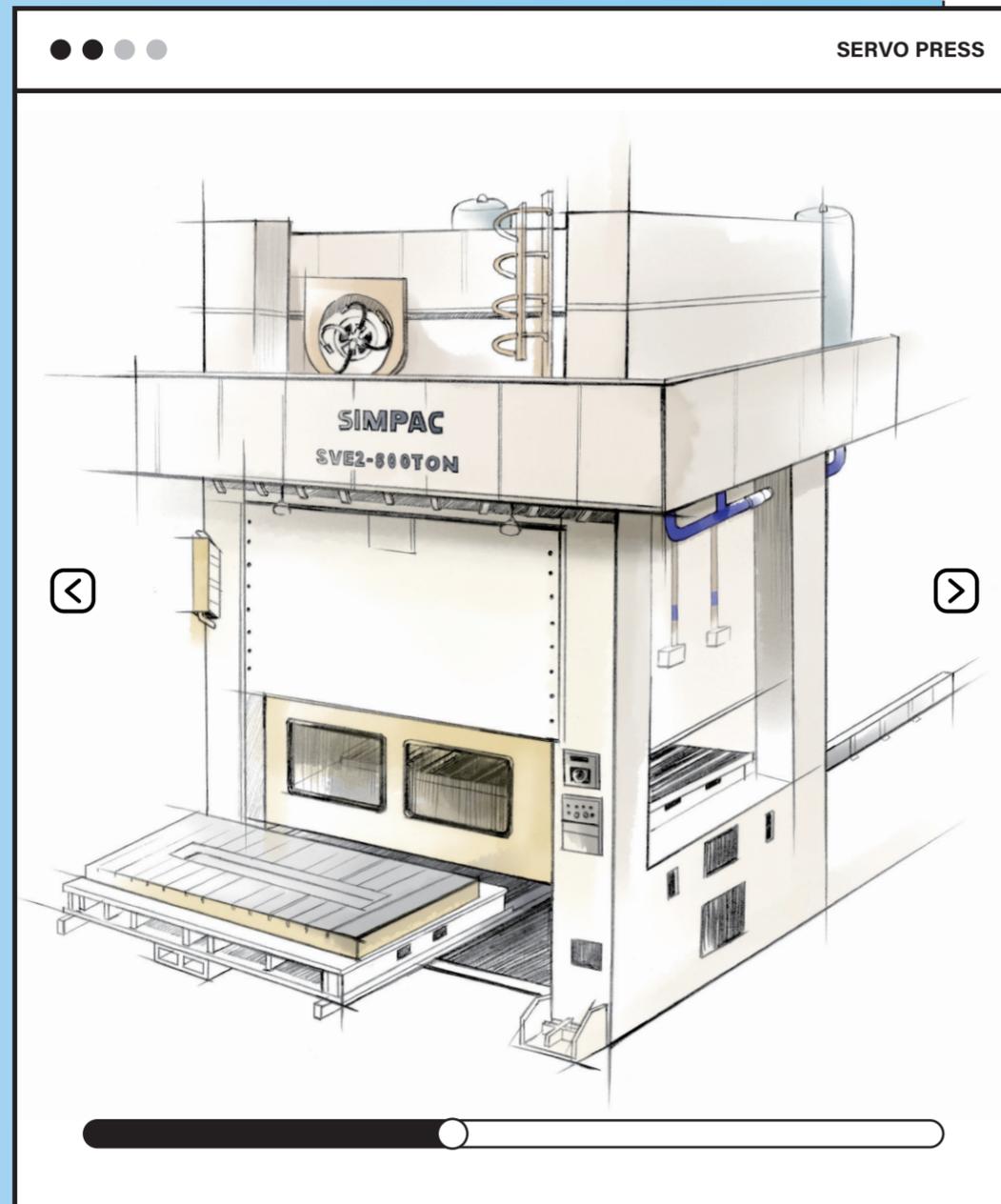
- HOME
- PRESS BU
- PRODUCTS
- INTERVIEW
- LEADER

서보 프레스



수소차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다

SIMPAC의 서보 프레스는 보수 유지 비용 및 에너지 소비량 절감 등 환경 친화적인 프리모션 프레스로 가공대상에 최적인 슬라이드 모션 구현과 고생산성, 고정밀도 및 저소음을 실현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 절약

전력 소모량 절감: 기계식 대비 약 13%,
윤활유 소비량 절감: 약 60%,
Running Cost 및 Maintenance 비용 절감: 55%



고정도 및 유연성

성형 내용에 맞춰 작업별 최적의 모션 설정으로
제품의 성형성 및 정도 향상



저소음, 저진동

7-20dB의 소음저감, 저진동 효과에 의한
금형 수명 2-5배 증대



생산성 향상

상사점을 지나지 않고 필요한
스트로크만 생산하여 생산성 향상

브랜드의 세계화와 서비스의 현지화

SIMPAC은 수소차와 관련된 서보 프레스 라인을 수주하고 제작에 집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소차의 부품 양산에 필요한 서보 프레스도 개발 중이다.

고석지 매니저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올해는 수소차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보 프레스는 자동차 보닛, 문짝 등 차체 부품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다. 기존 기계식 프레스가 두세 개의 동작만 인식할 수 있는 것과 달리 100개 이상의 동작을 인식하는 게 특징이다. 직류(DC)·교류(AC)모터를 쓰지 않고 동작 제어가 가능한 서보 모터(Servo Motor)를 썼다. 다양한 동작 인식이 가능해 여러 종류의 차 부품을 한 대의 기계로 생산할 수 있다. 고장력 강판, 알루미늄 등 최신 소재를 가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독일 등에 수출하기 위해 유럽의 제품안전인증(CE인증)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SIMPAC은 기존 설비였던 너클 프레스의 제품 라인업을 구축,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응할 수 있는 너클 프레스를 제작해 시장에 선보였다.



- HOME
- PRESS BU
- PRODUCTS
- INTERVIEW
- LEADER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과 도전정신으로 최고가 되다



SIMPAC은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요구를 적극 반영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그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프레스 메이커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지배력을 지속 유지하며 글로벌 프레스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KOREA'S NO.1 PRESS MAKER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SIMPAC 프레스BU는 고객의 다양하고 높은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계 설계부터 용접, 가공, 조립, 포장 출고, 설치 시운전까지 생산의 모든 프로세스를 자체적으로 수행해 고객에게 높은 품질의 프레스 장비를 제공한다.

타사 및 해외경쟁사 대비 탁월한 납기 및 AS 대응 능력도 빼놓을 수 없다. 프레스의 핵심 부품 중에는 운송만 약 3~4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품도 있다. SIMPAC 프레스BU는 부품을 표준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고, 기종 별로 차이가 있는 핵심 부품은 변형 가능한 조건으로 병행 검토·적용해 긴급 사태에 즉시 대응해왔다. 고석지 매니저는 “시장에서 우리 프레스가 인정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설계·생산·품질 등 전 부서가 하나가 돼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의 요구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며 최상의 대응력은 우리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다”라며 고객만족도를 끌어내는 요인을 설명했다. 아울러 류승우 매니저는 “전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최상의 솔루션을 이끌어내는 팀워크가 바탕이 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의견을 덧붙였다.

기업의 성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SIMPAC 프레스BU는 품질과 기술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확고히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직원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더해져 끊임없는 발전을 영사진가능케 한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무한한 도전! SIMPAC 프레스BU가 국내외 프레스 시장에서 힘찬 비상을 하는 이유 아닐까 생각해본다.



MINI INTERVIEW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는 프레스는 국가의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SIMPAC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며 국가 산업의 성장에 기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품질, 최상의 제품력을 가진 프레스를 생산하며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과 품질을 제1의 가치로 여긴 SIMPAC의 기업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생산팀 류승우 매니저

하나의 제품을 만들려면 관련된 전 부서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때문에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이 필수입니다.

오후 12:00

생산팀 박정호 매니저

생산팀은 고객사가 인정하는 완벽하고 품질력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자세가 우리 품질의 바탕이 됩니다.

오후 12:04

기계설계팀 전성현 연구원

현재 시스템 안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 시스템을 보유한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멋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끝이 없을 겁니다.

오후 12:12

전기설계팀 최재형 연구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단한 자기개발로 저뿐 아니라 회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오후 12:24

국내영업팀 고석지 매니저

영업팀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최전방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니즈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 12:25

제품개발 연혁

1995~1996

- 프레스 업계 최초 ISO9001 인증 획득
- 크랭크프레스 프레스 1,500톤 이하 EM 마크 취득

2006

- 링크기구를 이용한 서보 프레스 장치 NET(신기술) 인증 획득

2007

- 서보 프레스 SV4P-700 개발
- 서보 프레스 장치관련 특허 취득

2008

- 서보 프레스 SV1P-200, SV2P-400 개발

2013

- 트레스퍼 프레스 DTL4-2500 개발

2014

- 서보 프레스 SV4-1200, SV4P-1600 개발
- 트레스퍼 프레스 DTL4-2600 개발

2019

- 서보 프레스 동기화라인 개발 (SV1P-250 x 5)
- 1-point 프레스 신제품 발표 (CX-80~300)

2020

- 기계식 프레스 동기화 라인 개발 (CXS-300 LINE)

2021

- 4-point 프레스 개발 (30000ton 급: DT4L-3000)
- 너클 프레스 개발 (MCK1-110, MCK2-500)

- HOME
- PRESS BU
- PRODUCTS
- INTERVIEW
- LEADER

우리 스스로 항상 던져야 할 질문

Why?

개발과 혁신에는 결승점과 최종 목적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Why?”라는 자세로 모든 업무와 사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의문을 가지며 탐구하는 자세야말로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 R&D본부

남진환 상무

A부터 Z까지 모든 공정을 우리 손으로!

SIMPAC 프레스BU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요인에 대해 남진환 상무는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제작 프로세스를 일순위로 꼽았다. SIMPAC 프레스BU는 수주·설계·절단·용접·가공·조립·시운전의 제작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소화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공정 중 문제가 발생하면 유관부서가 즉시 투입돼 최적의 결론을 도출한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원활한 공정 진행은 납기 대응력의 필수 조건이다.

“SIMPAC 프레스BU의 작업은 모두가 수작업입니다. 경력 20년 차 이상의 베테랑 작업자가 50여 대 이상의 중대형 설비로 정밀가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AS 역시 현장에서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SIMPAC 프레스BU는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의 작은 제안 하나하나가 제품 제작의 효율성, 기술력 증대, 현장에서의 작업 효율, 작업 기술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생산본부는 고객의 소리를 듣기 위해 제품 인계 완료 후 개선·보완 사항에 대해 타당성 및 표준화 적용을 검토한다. 고객지원팀은 고객만족도에 대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고객 만족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제품이 생산되어 납품되는 전 과정에서 SIMPAC 프레스BU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통’, ‘협업’, ‘교류’, ‘능동적 자세’

지난해 SIMPAC 프레스BU는 각 팀 간의 소통과 협업 의지가 크게 성장한 한 해를 보냈다. 내일, 내일 일 가리지 않고 성장발전에 필요한 미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함으로써 혁신적인 개선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몇 차례 시행착오를 거쳤던 너클 프레스의 안정적 개발에 성공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2차 개선을 완료하여 추가 수주 설비에 적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프레스의 핵심 부분인 메인 프레임과 드라이빙 파트에 최신 툴(Tool)을 과감하게 적용 및 활용함으로써 구조 단순화, 중량 축소 등을 이뤘고, 이는 원가절감으로 이어졌다.

“개발과 혁신에는 결승점과 최종 목적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Why?”라는 자세로 모든 업무와 사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의문을 가지며 탐구하는 자세야말로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이에 남진환 상무는 SIMPAC 프레스BU 직원들이 갖춰야 할 행동양식으로 ‘소통’, ‘협업’, ‘교류’, ‘능동적 자세’를 꼽았다.

“수동적인 업무보다 능동적인 업무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일 또한 즐겁게 할 수 있고요. 일이 즐겁다고 느끼면 뇌세포가 활성화돼 무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끝없이 나옵니다. 소통하고 협업하고 교류하면 개인 및 회사의 역량이 높아집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지식은 개인 역량이지만 그것을 공유하면 회사 전체의 역량이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SIMPAC 프레스BU는 ‘프레스의 명품 브랜드’라는 말을 듣고 있다. 하지만 남진환 상무는 “우리가 가진 네임밸류 때문에 놓친 것은 없는지, 변화와 개선에 둔감했던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국내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일부 파트는 후발주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고객에게 인정받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당연히 추격을 당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따라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2021년부터 현재, 그리고 향후 2~3년이 SIMPAC 프레스BU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SIMPAC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SIMPAC이라는 브랜드가 점차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것에 집중하고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SIMPAC의 기술력으로는 SHULER, AIDA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 최적의 설계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재의 강점인 납기대응력과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시장을 넓혀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도 충분히 높아질 거라 믿습니다.”

올해도 2021년의 연계선 상에서 국내외 프레스 시장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SIMPAC 프레스BU는 지난해에 이어 신기술 및 신기종 개발, FEM을 통한 FRAME 최적화와 STAR-GEAR를 활용한 안정적인 구동부 확보, 공정개선, 숙련된 기능공 양성의 교육을 체계적·조직적으로 진행하면서 SIMPAC 프레스의 명성을 이어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과정이 ‘GLOBAL NO.1’이라는 최종 목표에 이르는 힘이 된다는 것을 SIMPAC 프레스BU 전 임직원이 공유하며 지속 성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다

산업구조 대전환의 시대, 기업은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을 피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가치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MZ세대는 이제 SIMPAC의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을 주축으로 SIMPAC은 모든 구성원을 잇는 소통협의체 'SIMPAC 주니어보드'를 출범했다. 각 사에서 2030세대를 대표하는 직원 5명을 선발하여 지난 3월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아젠다로 교류와 소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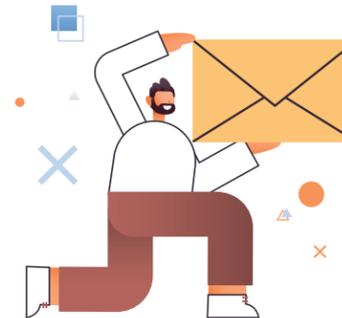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문화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MZ세대가 그러하듯 주니어보드는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문화로 꼽았다. 기업 입장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으로 정식티근, 유연한 근무, 복리후생 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속된 부서에 따라, 업무의 특성에 따라 주니어보드의 워라벨 사정은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그중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Justin은 소속 팀의 조직문화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교육과 삶을 살아왔고 이에 대해 가치관도 다른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어울림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심리적 간격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일 @Kyle
SIMPAC 메탈BU / 당진공장 대리



해외영업팀은 나라별로, 시장별로 처리해야 할 업무의 특성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각 시장을 담당하는 매니저들이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맡은 바를 모두 해결하기만 한다면 정시 퇴근에 무리가 없는 편입니다. 물론 시차 때문에 밤에 진행되는 해외 고객사와의 화상미팅이나 컨퍼런스콜은 시간 상관없이 책임지고 참석합니다. 그런 때에는 다음 날 유연근무제를 적용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스틴 @Justin
SIMPAC 프레스BU / 해외영업팀 매니저

흔히 MZ세대를 '열정이 없는 세대', '일하기 싫어하는 세대'라고 오해를 하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을 잘 성취하고 싶어하는 열정 부자'들이죠. 워라벨을 얘기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연이은 야근을 불사하며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합니다.

주니어보드는 이러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이 이루어낸 성과, 이에 따른 경쟁력 있는 보상 시스템을 SIMPAC이 더욱 유지하고 보강해야 할 조직문화로 선정했다. Jerry를 비롯한 주니어보드 위원은 지금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고성과 노력이 결국 업무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금전적 보상 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의 격려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원동력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니어보드는 세대 간, 부서 간 함께 어울리는 소통문화와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이견이 없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라온 시대와 배경이 다른 여러 세대들이 업무공간에서 한데 어우러져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MZ세대는 상급자와 소통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니어보드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일방적 'Top-down' 방식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일 뿐 다른 구성원과의 소통을 자주 원한다고 밝혔다. 직장생활에서 일이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발생하는 갈등은 감당하기 힘들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갈등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니어보드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살아왔던 환경과 가치관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이해의 틈이 좁혀지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회사 차원에서도 젊은 인력의 유출을 막고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정착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이 필수적인 SIMPAC에서는 팀워크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부서 간의 교류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유관부서 간의 협업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주 만나지 못하는 직원과는 아무래도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직원 사이에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께 헤쳐 나가고 있다는 유대감은 조직의 목표 달성과 혁신적 성과와 직결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SIMPAC이 추구하는 조직문화와 각자 소속된 부서의 조직문화의 특성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SIMPAC의 조직문화에는 높은 책임감과 주인의식 그리고 수평적 업무공유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다.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고 있는 Jason은 현장에서 직원 간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주말, 새벽 상관없이 메신저로 현안을 공유해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고 한다. 이는 직원들의 협업 문화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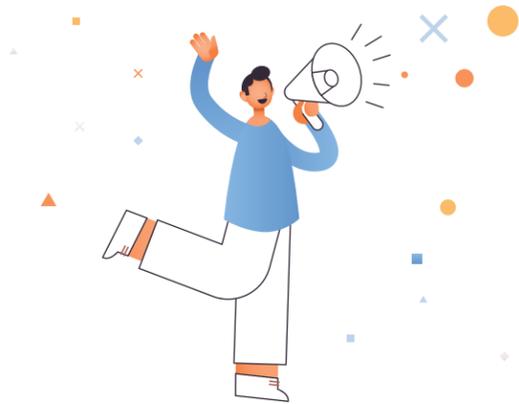
또한 개인마다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어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강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보고 체계에 있어서는 수직적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지만, 주니어보드는 이러한 체계가 업무 리스크 방지에 더 효율적이라 보고 있다.

주니어보드는 'SIMPAC은 구성원의 직무역량 개발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편'이라고 말한다. 직원 개인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은 곧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장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을 부연했다.

SIMPAC에서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비 지원, 사내 교육 프로그램, 직원 연수 등의 복지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비 지원의 형태가 증빙을 제출하고 환급 받는 방식인데 선택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지원 형태의 간소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증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증빙하기 어려운 교육의 형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니어보드는 지원의 투명성을 고려하여 교육비로만 지출할 수 있는 바우처 및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니어보드는 이러한 회사의 교육지원 제도와 더불어 직원들의 진취적인 태도와 성장 마인드셋 등의 의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직원 개인의 주도적인 변화의 마음가짐, 최선을 다해 성장하려는 태도는 곧 조직으로 번져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외에도 세대 간, 부서 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워크숍이나 멘토링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회사지만 얼굴을 몰랐던 직원들과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는 '소통의 명석'만으로도 부서 간의 장벽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에 대단한 변화를 이끌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주니어보드의 작은 노력과 열정이 모여 SIMPAC만의 새로운 기업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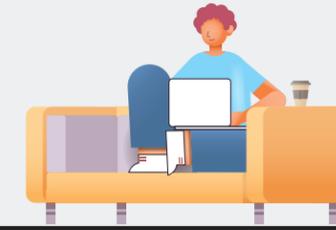
보고 방식이 수직적일 뿐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에서는 하급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줍니다. 의견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수평적인 분위기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수직적 보고 체계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팀장님께 이를 보고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놓치고 있던 문제가 발견되어 신속하게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빨리 업무를 배우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급자-하급자의 수직적 보고 체계는 더 큰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인 @Kane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 생산팀 사원



저희 부서도 직급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IMPAC은 구성원의 직무 역량개발과 전문성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회사 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교육비 지원이나 사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지원의 형태가 증빙을 제출하고 환급 받는 방식인데 선택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지원 형태가 좀 더 간소화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리 @Jerry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 경영지원팀 매니저



모든 분야에서 하급자의 의견이 전부 수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업무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직원 휴게시설, 구내식당, 목욕탕 시설 등의 개선 문제에 어떻게 하면 편안한 업무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이슨 @Jason
SIMPAC 메탈BU / 포항 1공장 사원



현재 우리의 조직문화 중 아쉬운 부분이 부서 간, 직원 간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서와 현업부서 사이에는 업무 특성을 서로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갈등과 혼선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이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조금씩 부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일 @Kyle
SIMPAC 메탈BU / 당진공장 대리

2021.12 - 2022.05

SIMPAC NEWS



SIMPAC그룹 차세대 ERP 프로젝트 PI 종료 & 구축 Kick-off 설명회

2022.05.27

SIMPAC그룹은 차세대 ERP 구축을 통해 제 2의 도약을 위한 성장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6일 시작된 차세대 ERP 프로젝트 PI 종료 보고와 2022년 6월 7일 시작되는 구축 프로젝트 Kick-off를 알리는 행사가 5월 27일 여의도 Parc1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지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었다. 'SIMPAC, The beginning of a new era'라는 행사 주제로 회장님을 비롯한 SIMPAC그룹 전체 임원 및 팀장 그리고 프로젝트 TF(Task Force)팀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며 삼성SDS 컨설턴트 및 관련 임원까지 약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ERP 구축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 6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총 2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2022년 5월 27일까지 PI(Process Innovation)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진행중인 2단계는 시스템(SAP ERP) 구축 단계로 2023년 1월 2일 그룹사 전체 차세대 ERP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 안정화 기간을 가져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2시부터 3개의 세션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프로젝트 결과보고와 정의된 표준화 프로세스 설명과 함께 각 모듈(생산/영업/구매/회계/관리/IT) 이슈리더들의 발표가 2개의 세션으로 PI 종료보고 행사가 진행되었고 마지막 3번째 세션에는 차세대 ERP 프로젝트의 오너인 최민찬 상무님의 마무리 발표로 차세대 ERP 구축 계획과 SIMPAC의 미래 모습을 담은 내용들이 보고되었다. 끝으로 삼성SDS 강석립 부사장과 SIMPAC그룹 회장님의 강평으로 세션이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참여인원과 함께 만찬이 진행되었다. 또한 6개월 동안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TF팀원 28명에게 특별휴가와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SIMPAC 프레스BU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업체 MARTINREA International 프레스BU 본사 공장 방문

2022.05.11

지난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인 MARTINREA International은 부평에 위치한 프레스BU 본사 공장을 방문해 3,000톤 트랜스퍼 프레스의 입회 검사를 진행했다. MARTINREA 담당자들은 입회검사에서 3,000톤 프레스의 구동을 실제로 확인 후 만족감을 표하였으며, SIMPAC은 성공적인 입회검사를 통해 세계적인 글로벌 TIER-1급의 회사에도 전략적인 협력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업체인 MARTINREA International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다. SIMPAC은 2017년 MARTINREA 멕시코 공장에 서보 프레스 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 멕시코 공장에 2,600톤 트랜스퍼 프레스를 설치하였고, 2021년 3,000톤, 1,600톤 프레스를 동시에 수주 받아 2022년 말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3,000톤 트랜스퍼 프레스인 DTL4-3000의 경우 수십 년 간의 SIMPAC의 역사에서 첫 개발된 기계식 트랜스퍼 프레스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소재 및 공정법의 변화에도 대응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낸 산물로서 매우 뜻 깊은 기종이다.



SIMPAC그룹



차세대 ERP 프로젝트 추진 히스토리 및 성과

2021.12~2022.05

- 2021.12**
 - SIMPAC그룹 차세대 ERP 프로젝트 Kick-off 설명회
- 2022.01**
 - 프로젝트 TF 구성 및 1차 소집 (각 부서별 Key Man 총 23명)
 - SAP 기반의 차세대 ERP 기본 교육 (Key Man 대상)
 - 차세대 ERP PI 단계 추진 전사 설명회
- 2022.02**
 - 프로젝트 TF 2차 소집 (SAP교육 및 To-be 설계를 위한 프로토타이핑 진행)
 - SIMPAC그룹 전사 경영진 대상 혁신방향 공유회 실시
- 2022.03**
 - 프로젝트 TF 3차 소집 (2차 프로토타이핑 진행)
 - ERP외 백오피스 솔루션인 그룹웨어, 인사시스템, 재무 솔루션 등의 검토회 진행 (실무자 대상)
 - 에코프로 간접 벤치마킹 (삼성SDS 컨설턴트 진행)
- 2022.04~05**
 - 프로젝트 TF 4차 소집 (각 모듈별로 디테일하게 진행)
 - 현대일렉트릭 방문(유사 기업 벤치마킹)
 - PI 산출물 점검 및 TF팀의 각 모듈별 이슈리더 선정
 - 각 모듈(영업/생산/구매/회계/관리/IT)의 주요이슈와 개선 방향 및 혁신과제 리뷰



2021.12 - 2022.05

SIMPAC NEWS



SIMPAC그룹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 제11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취임

2022.02.24

중견련은 2022년 2월 2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SIMPAC그룹의 최진식 회장님을 제11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중견련 회장의 임기는 3년, 2025년 2월까지이다. 최진식 회장님은 취임사에서 "기업은 모든 국부의 원천이자 생산과 교역의 중심 주체"라면서, "중견기업계의 신뢰에 오로지 의지해 새로운 성장을 이끌 진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첫째,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정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거점을 구축하고, 둘째로 모든 경제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한층 강화, 단기·중기·장기적 전망과 기획 아래 기업과 사회의 적실한 화해를 모색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중심이자 동반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의 역할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별 기업 혹은 기업군의 이익을 넘어 약화된 국가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또한 경제단체들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선명한 사례로서 기업의 핵심 구성원인 이른바 '유리지갑'의 가치분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진식 회장님은 "함께가 아니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진실을 재확인한 팬데믹 시대,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혼자서 열 걸음보다 가치 있다는 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면서, "이익의 극대화를 넘어 모두의 혜택을 최적화하는, 시대의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주체이자 연대의 중심으로서 중견기업의 위상을 높게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MPAC그룹



HDS소속 장기근속자 포상

2021.11.03

2021년 11월 3일, 심팩빌딩 대회의실에서 HDS소속 장기근속자 포상을 실시 했다. 회장님께서 금분패를 직접 수여했으며, 근속년수별 별도의 포상휴가와 여비가 지급되었다.

(대상자는 사진 좌측부터)

- SIMPAC홀딩스 ENG생산관리팀 서상철 과장(10년)
- SIMPAC홀딩스 ENG생산관리팀 송희영 대리(10년)
- SIMPAC홀딩스 경영지원실 지승연 과장(15년)
- SIMPAC홀딩스 합금철구매팀 강동희 부장(10년)



SIMPAC 메탈BU



포항시 인재 육성장학금 기탁

2021.12.16

SIMPAC 메탈BU는 포항시 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금 2천만 원의 장학금을 포항시청으로부터 기탁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였다.

지난 2010년 장학금 1천만 원의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여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SIMPAC 프레스BU



(주)SIMPAC 이웃 사랑 성금 기부

2021.12.22

지난 2021년 12월 22일 (주)SIMPAC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 사랑 성금 1천만 원을 부평구청에 전달했다.

(주)SIMPAC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부평구에 1천만 원씩 기탁하며, 동절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 및 (주)SIMPAC 심웅섭 대표이사가 참석하였다.



국내 1위의
자부심으로

세계적 프레스를 선사하다

SIMPAC 프레스BU는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1위 프레스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세계 최고 품질의 프레스를 차질없이 제공해 온 프레스BU. 프레스 생산 및 설치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생산팀 조립1반, 2반과 전기제어파트의 세 주임을 통해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TRANSFER PRESS DTL4-3000



전 세계를
누비는
'프레스 국가대표'



1973년부터 시작된 50여 년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1위 프레스 기업의 자리를 공고하게 다져 나가고 있는 SIMPAC 프레스BU. 전통적 기계식·유압 프레스부터 다기능 서보 프레스, 프레스 생산 라인 자동화 솔루션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 50%를 바탕으로 해외 수출 비중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가져오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프레스BU는 고객사의 요구에 걸맞은 프레스를 생산하기 위해 모든 공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고객이 원하는 사양의 프레스를 설계한 뒤 절단, 가접&용접, 소둔, 쇼트, 가공의 순서를 거쳐 각 부품이 완성되면 시방서에 준하여 배관, 배선, 조립, 설치, 시운전을 차례대로 진행한다. 조립1·2반과 전기제어파트는 공장내 설치 현장에서 배관부터 시운전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며, 설치 후 프레스에 대한 고객사 직원 교육까지 도맡는다.

고객사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며 프레스를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영업과 수주, 현장 설치와 시운전 등 프레스BU 업무의 절반은 공장 밖에서 이뤄진다. 조립1·2반과 전기제어파트 직원들도 출장이 많은 편이다. 낯선 곳에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기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따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레스 국가대표'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조립1반 윤근우 주임, 조립2반 김정호 주임, 전기제어파트 이경덕 주임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 조립1반은 대형 프레스를,
- 조립2반은 중·소형 프레스를 주로 조립합니다.
- 한편 전기제어파트는 프레스 내의 배선 및 프로그램 설치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 총 80여 명의 직원들이 설계한 그대로의 프레스를 고객사 공장에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작은 나사와 볼트, 전선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SIMPAC 프레스BU 조립 1반
윤근우 주임



TRANSFER PRESS DTE2-1500 →

NO.1



완벽을 향한
적극적 투자

프레스BU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프레스를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해
생산 공정상의 적극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안전한 일터

생산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기에,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도 안전만큼은
철저히 사수한다.

← TRANSFER PRESS DE2P-1200



선택과 집중

핵심 부품의 내작화 비율을 높이고
부속 부품을 과감하게 외주화함으로써
프레스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TRANSFER PRESS DTE4-1600 →



완벽을
향한
생산적 도전



프레스BU는 3대 지상과제인 '납기 준수', '품질 향상', '안전 작업'을 사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도전에 나서고 있다. 먼저 생산 현장의 업무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각종 공구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윤근우 주임은 "프레스가 워낙 복잡한 기계이기에 조립에는 사람의 품이 들지만, 공구가 좋으면 작업 속도가 대폭 빨라진다"며 회사의 적극적인 투자에 엄지를 치켜올렸다.

'선택과 집중'도 프레스BU의 주요 생산성 향상 전략이다. 프레스의 핵심 부품의 내작 비중을 늘리는 한편 중요도가 낮은 부속 부품은 과감하게 외주 제작함으로써 전체적인 생산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는 것. 이 주제가 거론되자 이경덕 주임이 실제로 겪은 현장의 변화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아무리 납기를 잘 지킨다고 해도 완벽한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 위의 성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에 완벽하게 제품을 생산, 설치해야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생산팀 직원들이 매사를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다.

프레스와 연결된 케이블과 전선을 정리하려면 케이블 덕트라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케이블 덕트 안에 각종 선을 수납하면 케이블 수명을 늘릴 수 있고, 외부도 한층 깔끔해지죠.
예전에는 프레스에 부착하는 프레스 덕트를 일일이 우리 파트에서 직접 만들었는데, 지금은 치수를 재고 원하는 모양을 정해서 외주 제작을 합니다. 덕분에 파트원들은 더욱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습니다.

SIMPAC 프레스BU 전기제어 PART
이경덕 주임



생산성은 단순히 볼트 한두 개를 더 빨리 조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를 어설피게 조일 시간에 하나를 완벽하게 조여야 프레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죠.
회사에서도 이런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적극적인 공구 지원도 이러한 분위기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죠.

SIMPAC 프레스BU 조립 2반
윤근우 주임

Quality

Global



Business

사명감으로
밝히는
내일의 희망



태국에서 다들 흔쾌히 터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저희 또한 내 손으로 직접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터키 현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내 프로젝트를 마치고 7월 초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아마 다른 동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더라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직원들 모두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이러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프레스BU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확신합니다.

SIMPAC 프레스BU 조립 2반
김정효 주임

회사 안팎에서 다양한 일들이 다이내믹하게 벌어지는 만큼, 세 주임도 남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 윤근우 주임은 입사 4년차이던 2008년, 프레스 강국인 일본 현지로 날아가서 SIMPAC 프레스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돌아왔다. 일반적인 프레스와 다른 형태의 특수 프레스였는데다가 설비를 총 세 파트로 나눠서 신고 현장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대형인 프레스를 일본에 납품했으니, 그 추억이 강렬할 법도 하다.

그런가 하면 김정효 주임은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 2월 초 태국 출장길에 올랐다가 뜻하지 않게 6개월간의 장기 출장을 맞았다. 그와 동료들이 태국에서 설치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동안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향하는 교통편이 한순간 모두 막혔다. 하지만 태국에서 다른 해외로 향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었는데, 때마침 터키 프로젝트가 잡혀 있는 상태였다. 김 주임과 동료들은 기꺼이 다음 행선지를 터키로 잡았다. SIMPAC 마크가 붙은 프레스를 애타게 기다리는 고객사의 마음을 십분 이해했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적 물류 대란으로, 나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공정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프레스BU도 이러한 답답함의 한가운데에 서 있지만, 같은 성능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원가 절감, 프레스 시장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기에 걱정보다는 희망이 더욱 크다고 세 주임은 힘주어 말한다. SIMPAC 프레스BU의 2022년이 기대되는 이유다.

우리의 경영 혁신과 사업 성장, ERP에서 시작된다

SIMPAC그룹은 지난해 12월부터 ERP 시스템 도입을 위한 단계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RP 시스템은 기업의 전사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로서,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따라서 ERP 시스템 도입은 전사적인 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사적인 변화를 토대로 할 때 만이 SIMPAC그룹에 딱 맞는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이 가능하다.





SIMPAC그룹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할 ERP

기업이 지속 성장을 하려면 기업의 규모에 적합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SIMPAC그룹은 매출 1조 원 이상의 회사 규모에 걸맞는 자원 체계의 구축 및 신규 사업과 해외 사업을 아우르는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ERP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의 약자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재무·제조·공급망·인사 관리 등 모든 경영 활동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ERP를 통해 기업은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생성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고 빠른 의사결정을 실현할 수 있다. SIMPAC그룹의 ERP 구축 프로젝트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SIMPAC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또한 노후화된 시스템과 업무 방식의 개선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의 선진화를 꾀한다는 목적도 있다.

IT팀 현창우 매니저가 ERP 구축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SIMPAC그룹은 지금까지 ERP 시스템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스템은 사업부 별로 통합 운영이 힘들었고,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류나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엑셀 등의 수작업이 많아서 사고 발생의 위험 요소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직원들 간의 원활한 업무 공유가 매우 중요하고, 짜임새 있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프로세스는 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직원들 모두 ERP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SIMPAC그룹은 'ERP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SAP'와 삼성그룹의 ERP 구축 경험을 보유한 삼성SDS와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SIMPAC의 9대 사업영역과 5대 핵심 업무 영역에 대한 통합 표준 프로세스를 정의한 후 ERP 구현 방안과 IT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ERP 구축 프로젝트는 올 6월까지 삼성SDS의 컨설팅을 중심으로 PI(Process Innovation) 단계를 거쳤다. 이는 SIMPAC그룹의 전산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ERP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의 업무 영역별로 키맨(Key Man)을 선정하고 TFT를 운영했다. TFT는 PI를 진행하는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소집하여 Key-man들이 전국 각 사업장에서 인천 부평 사업장으로 모여 ERP에 대한 교육을 받고, ERP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여러 논제에 대해 토론하고 검증하는 시간이었다. TFT 구성원들은 업무 영역별로 ERP에 들어갈 기초 데이터의 기준을 세우고 표준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타 부서와 계열사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장 저마다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프로세스 개선과 시스템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ERP 도입은 조직 구성원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업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위한 것인 만큼 ERP 도입과 관련하여 경영진 및 실무진 간의 협력과 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TFT 구성원들은 '선진 프로세스 구축'과 '회사 비전 달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토론과 토의에 임하고 있다. 메탈BU 당진공장 생산팀 송치문 차장은 ERP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장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공정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확하고 명확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부문에서 혁신적인 시스템화가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ERP 도입으로 우리의 역량

달라질 것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및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인프라 마련

ERP 구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SIMPAC그룹은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고부가가치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기획과 설계,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한 **프로세스 변화부터 혁신적인 성과 창출까지 개인과 회사 모두 새로운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현창우 매니저가 ERP 시스템 도입 이후의 청사진을 그렸다.

“ERP를 경험하면 몸값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ERP는 쉽게 경험하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ERP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학습이 필요하므로 **개인의 역량과 커리어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입니다. ERP 구축 프로젝트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의미합니다.”



ERP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그 어떠한 프로젝트보다도 많은 변혁이 요구된다. ERP 시스템 구축은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 근본적, 급진적 혁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ERP 시스템 도입에 따라 **조직, 인원, 업무 방식 및 절차, 회사 비전과 경영전략 등에서도 전사적인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리스텍비즈 김도수 사원이 ERP 시스템 도입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다른 키맨들도 고개를 끄덕인 대목이다.

“리스텍비즈는 지금까지 ERP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ERP 시스템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ERP 시스템이 적용됐을 때의 변화상은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전제돼야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생기고,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 과정의 어려움은 기존의 틀과 사고방식을 깨는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부터의 혁신’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이다. SIMPAC그룹의 성장과 발전은 몇몇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Mini Interview

**ERP
시스템에
기대해!**



SIMPAC 프레스BU, IT팀 현창우 매니저
TFT에서 활동하고 계신 키맨을 비롯하여 SIMPAC 전 직원들이 ERP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리스텍비즈 김도수 사원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면 업무는 효율적으로, 생산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SIMPAC 프레스BU 김경태 매니저
완벽한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프로세스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SIMPAC 프레스BU 김정경 매니저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쓸 수 있다는 기대감, SIMPAC이 글로벌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송치문 차장
ERP 시스템 도입이 불러올 변화가 기대됩니다. 데이터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효율 향상의

화룡점정 畫龍點睛

모든 자동차 기업이 전기 자동차의 주행 가능 거리 연장에 사활을 거는 가운데, 구동 모터 효율 향상에 이바지하는 소재의 가치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에서 생산하고 있는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도 그중 하나. 이 제품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줄까. 개발과 양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두 직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청했다.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 (FeSi #2 L-C)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고순도 페로실리콘 제품군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다. 일반적인 고순도 페로실리콘의 탄소 함량이 0.04%, 티타늄 함량이 0.015% 정도인데 반해,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탄소 및 티타늄 함량이 각각 0.015%와 0.01%에 불과하다. 고순도 페로실리콘에 함유돼 있는 탄소와 티타늄은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물질로, 함량이 낮을수록 전기 효율이 높아진다. 한마디로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전기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품인 것이다.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모터의 철심 소재인 전기 강판의 재료로 쓰인다. 물론 전기 자동차 구동 모터의 핵심 소재로도 활약하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고순도 페로실리콘이 아닌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이 사용된다.

오늘날 전기 자동차의 핵심 현안은 '주행 가능 거리 향상'인데, 이는 전기 효율의 향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배터리 탑재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구동 모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러다 보니 자동차 업계는 전기 효율 극대화에 도움을 주는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전기 자동차 구동 모터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일제히 전기 자동차로 향하고 있기에,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중인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작년 1월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 시험 생산에 이어 7월 양산에 성공한 페로실리콘BU는 생산량 전량을 세계적 철강사 포스코에 납품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맞춰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국내 최초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
국내 최초 개발 및
국내 유일 양산



저탄소 & 티타늄
탄소(0.015% 이하)와
티타늄(0.01% 이하) 함량 최소화로
전기 효율 향상



1만 톤
올해 포스코에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
1만 톤 납품 예정



FeSi #2 L-C

공장 인수 1년 만에 미래 먹거리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생산팀
임희석 기장

2022년 각오와 목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섞여 들어가는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탕을 완제품 크기의 몰드에 각각 부어 생산하는 무파쇄 공정을 올 3월부터 구축하고 있는데요. 예정대로 8월경까지 무사히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우리 공장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의 전기로 생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성공적으로 양산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페로실리콘BU는 전임 회사로부터 공장을 인수받던 2019년 11월 이전부터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의 높은 부가가치와 밝은 미래성을 고려한 결정이었죠.

하지만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개발하고 생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전임 회사도 2013년부터 연구에 돌입했지만 우리에게 공장을 인계할 때까지 성공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도전이었죠. 일반적인 고순도 페로실리콘 대비 탄소 함량은 0.025%, 티타늄 함량은 0.005% 정도 낮은 제품이지만 이 작은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공장 인수 후 1년여를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덕분에 작년 1월 시험 생산 성공으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7월 양산에 성공해 작년에만 7천여 톤을 포스코에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1만 톤을 생산해 납품할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생산팀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과 시행착오를 이어 나가며 품질 안정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공장을 먹여 살릴 핵심 제품인 만큼, 더 좋은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생산하기 위해 열심히 땀 흘리겠습니다!



사무실과 생산 현장의 팀워크가 신제품 개발 및 양산 성공의 비결이죠

SIMPAC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 생산팀
김건우 과장

우리 공장이 7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은 시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량이 전기 효율에 민감한 전기 자동차에 투입되지만,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만큼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공장 인수인계를 받으면서부터 이 제품의 개발에 사력을 다해 온 이유입니다. 전임 회사가 몇 년 동안 개발하지 못한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우리가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생산팀의 강력한 팀워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사무직과 현장직 사이의 생각 차이가 크고 서로 잘 섞이지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공장은 모든 직원이 뚜렷한 목표 의식을 공유하며 마치 한몸처럼 개발과 생산에 매달렸기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임희석 기장님을 포함한 모든 생산팀 동료 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의 제품력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때때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슈의 크기와 빈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품질과 양산 체제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앞으로도 페로실리콘BU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해 주세요!

2022년 각오와 목표

티타늄은 고순도 페로실리콘에서 분리하기 매우 어려운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의 품질을 높이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죠. 앞으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세계 최고의 저탄소 고순도 페로실리콘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공이산의 노력이 만든 인연

유한정밀

국내 최초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양산화 성공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출시한 수소전기차 '넥쏘(NEXO)'에 들어가는 금속분리판 전량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 바로 유한정밀이다. 매우 얇은 소재를 대형 프레스 장비로 찍어 누르면 A4종이보다도 더 얇은 금속판이 만들어진다. 프레스의 힘이 조금만 달라져도 금속판이 찢어지거나 소재에 변형이 생기므로 매우 정교하고 민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레스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금속분리판을 책임지는 유한정밀의 프레스 장비 상단에는 제조사 'SIMPAC'의 마크가 새겨져 있다.



제일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신뢰와 실력으로 다시 이어진 인연

유한정밀과 SIMPAC의 첫 인연은 약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한정밀은 생활가전 부품을 만드는데 SIMPAC의 기계식 프레스를 사용하였으나 2000년대 초 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하며 가전제품에서 모빌리티 부문으로 모델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기계식 프레스의 사용이 줄어들게 되었다. SIMPAC은 이후 유한정밀의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장비를 수출하면서 본사와의 사이는 잠시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유한정밀의 아산공장에서 만난 생산관리팀 조광호 팀장은 SIMPAC과의 두번째 인연은 금속분리판을 만드는 너클 프레스로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사실 저희는 이미 타 메이커의 너클 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설비 장비 또한 함께 늘어나야만 했고, 제조사의 이원화보다는 단일화의 필요성도 느끼던 때였습니다. 마침 회사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춘 프레스를 개발하자는 결정이 있었고 이를 충족시켜 줄 협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량의 너클 프레스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요구 수준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제조회사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너클 프레스 부문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찾아온 SIMPAC과 손을 잡게 된 것이죠.”



고기능,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SIMPAC 국내영업팀의 김상덕 매니저는 약 4년 동안 유한정밀을 설득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아산공장을 방문하며 담당자에게 제안을 드렸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SIMPAC은 비록 너클 프레스 부문에 있어서 후발주자였지만 유한정밀을 설득시키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가했다. 결국 유한정밀은 SIMPAC과 함께 도전을 시작했다.

SIMPAC은 제품 설계부터 시작하여 생산 조립, 품질 관리, 연구개발 등 각 부서의 협업은 물론 이 과정에서 유한정밀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특징, 시뮬레이션에 대한 피드백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제품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SIMPAC은 약 10년간 너클 프레스 개발 연구에 매진했다. 그 중 유한정밀에 특화된 프레스를 연구하기까지는 약 5년의 시간을 보냈으며 이에 대한 목표는 단 하나였다.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최고의 기계를 만드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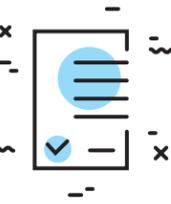
SIMPAC은 2021년 9월에 너클 프레스를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이어 지난 12월에는 인도 사업장까지 납품을 마쳤으며, 현재까지 유한정밀 해외 공장에는 70대 이상의 SIMPAC의 프레스들이 들어서 있다. 또한 올해 3월, 유한정밀 본사로 추가 2대의 너클 프레스 납품을 예정하고 있다.



너클 프레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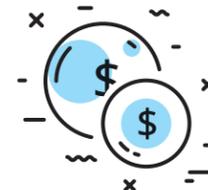
너클 프레스(Knuckle Joint Press)는 슬라이드의 하강운동시 하사점 부근에서 슬라이드의 운동속도가 줄어 가공속도를 낮추어 고정도, 고품질 가공을 실현하며 정밀 Drawing, Coining 등의 정밀 가공성형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여 금형 및 프레스의 수명을 연장하여 양산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프레스 및 금형의 수명연장으로 설비유지에 경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SIMPAC 너클 프레스 설비 사양

- 라인 구성 : MCK2-500 2 SET
- 스트로크 : 300mm
- S.P.M : 15~30
- 라인스피드 : 12/min (단속 조건 사용)
- 자동화 : 다관절 ROBOT (트랜스퍼 혼용 가능)
- 전기제어 : SPMS
- Slide adjust 자동조절 기능 포함
- 습식 콤비네이션 Clutch and Brake 적용
- 8면 기브 가이드 적용으로 견고한 프레임 정도 유지



최고의 제품은 곧 품질, AS로 다져진 최고라는 자부심

“SIMPAC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까지 품질과 관련된 이슈는 없었습니다. 품질은 곧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품질 이슈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져 오지 못했겠죠. 다만 납기에 관해서 현장의 사정이 간혹 긴박하게 움직일 때가 있어 SIMPAC도 저희도 서로 마음을 졸일 때가 있었습니다. 제품을 양산하는 설비이다 보니 납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의 공정이 아예 멈춰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에 납품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공장에 납품할 때는 배송하는 벌크선의 예약이라든지, 현지 스케줄 등을 맞춰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저희도 SIMPAC도 모두 고생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 납기는 어떻게든 모두 맞춰 주셨습니다.”

조광호 팀장은 아직까지 SIMPAC과 품질과 관련된 문제는 없었다고 말하며, 협력업체 관계에서는 ‘무소식이 곧 희소식이다’라고 덧붙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납품에서는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SIMPAC이 유한정밀에 납품하는 제품의 70% 이상이 해외 공장에서 사용된다. 특히 코로나19로 과거에는 없던 문제들이 최근까지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해외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부품 수급 또한 어려워 일정이 딜레이 되는 등 대외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들지만, 어떻게든 납기를 맞추기 위해 SIMPAC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광호 팀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의 사용자 입장에서 ‘AS 서비스’를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꼽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AS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제조회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타사의 경우 영업직원이 한 50명인데 AS 직원은 단 2명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비일비재해요. 저희도 고객사와의 신뢰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기계고장으로 공정이 멈추는 것만큼 아찔한 순간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때에는 밤 10시가 됐든, 밤 12시가 됐든 시간 상관없이 바로 AS를 요청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후서비스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요? SIMPAC과 지금까지 든든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품질에 대한 실력도 있었지만 이런 사후서비스 부분에서도 든든한 신뢰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SIMPAC의 단일 부서에서 제일 큰 조직이 바로 AS 조직이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공정의 물리적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각 권역마다 AS 거점을 두고 있다. 유한정밀 아산공장에서 20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SIMPAC AS 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김상덕 과장은 그 외에도 사전에 미리 찾아가 점검하는 ‘비포서비스’와 과거의 기계 설비만 고치는 것을 넘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AS 활동을 벌이는 등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조광호 팀장은 이 같은 SIMPAC의 노력을 두고 “우공이산”이라는 표현을 했다. 끊임없는 노력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간 기반을 다져놓은 신뢰, 이는 결국 유한정밀에 너클 프레스를 납품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회고했다. 유한정밀 또한 국내 우수 금형 업체들이 도전했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던 금속분리판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어 10여 년간 꾸준히 기술 개발을 시작하여 오늘 날에 이르렀으니, 최고를 만들어내는 회사들 사이에는 포기를 모르는 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듯하다.



국내 최초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양산화 성공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 '넥쏘(NEXO)' 금속분리판 전량 납품)



신뢰의 연장선 끝에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유한정밀 생산관리팀 조광호 팀장

SIMPAC과 너클 프레스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물론 SIMPAC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당시의 상황이 서로 맞았던 것도 있지만, SIMPAC직원분들께서 저희를 설득시키기 위해 보여주시신 진심이 결국 저희 회사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접근하면서 꾸준한 업무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신뢰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회를 준 유한정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IMPAC 프레스BU 국내영업팀 김상덕 매니저

프레스 기계를 파는 입장에서 ‘SIMPAC 설비를 통해 제품 수율이 높아지고 생산품질도, 고객 만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유한정밀에 특화된 프레스를 개발할 시점부터 당사 연구개발 인력 및 생산/공정관리 파트에서 밤샘 노력으로 만든 설비가, 현지 고객사에서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깊은 보람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고의 파트너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팩인의 감성여행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콕 생활자가 증가하면서 도심보다 동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카페, 음식점, 공원 등 주로 동네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슬세권'에 대한 관심은 이미 높아진지 오래입니다.

이번 53호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SIMPAC인들이 보내는 소소하지만 특별한 일상과 감성적인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호는 포항의 핫플레이스인 스페이스 워크를 소개합니다.

철과 빛의 도시,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

스페이스 워크

사진제공 ©비발디나인포항,
SIMPAC 메탈BU 경영지원2팀 조슬범 사원

SPACE WALK

시간과 공간의 마법에 걸리다

“Space Walk”는 ‘우주선을 벗어나 우주를 유영하는’, 혹은 ‘공간을 걷는’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 루핑을 포함하는 작품의 형태는 공간 혹은 우주의 움직임을 표현해내며, 높이 떠있는 곡선 형태 위를 걷는 행위는 공간 혹은 우주를 유영하는 경험으로 연결된다.



포항의 핫플, 스페이스 워크

스페이스 워크 (Space Walk)는 지난 2019년 4월 1일 환호공원을 명소화하기 위해 포스코와 포항시가 협약을 맺고 포스코가 설치해 포항시에 기부한 작품입니다. 총길이 333m, 가로 60m, 세로 57m, 높이 25m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도 한 눈에 보일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랙의 길이 333미터는 포스코, 포항시, 포항시민의 상상, 협력, 미래를 상징하는 숫자이며, 포항의 상징 35인 철(Steel), 빛(Science), 바다(Sea)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져 총 333m 길이의 철구조물 트랙을 따라 걸으며 환호공원과 포항제철소, 영일만, 영일대 해수욕장 등 주변 풍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내 최초이면서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독일의 유명 예술가 부부인 하이케무터, 울리히 겐츠이 디자인을 맡아서 했고,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철로 그려진 우아한 곡선과 밤하늘을 수놓은 조명은 철과 빛의 도시인 포항을 상징하며, 스페이스 워크에서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포항의 풍경과 제철소 야경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거라며 관람객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포항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스페이스 워크를 찾아갔습니다. 환호공원에 도착해 주차장으로부터 스페이스 워크 입구까지 대략 500미터 정도입니다. 중간에 미술관과 조각공원이 나오고 안내 표지판을 따라 중간중간 보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 Space Walk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30 (환호동)

- **관람 정보** 평일 10:00~20:00
휴일 10:00~21:00
- **관람료** 무료
- **관람인원** 150명/동시관람 인원제한 (특별행사 시 인원 탄력조정)
- **관람제한** - 신장 110cm 이하 이용불가
- 강우, 강풍(8m/s 이상) 등 기후 변화에 따라 출입 차단

정상에 올라가다

5분 정도 오르다 보니 스페이스 워크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오르니 많은 사람들이 스카이워크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강우·강풍 8m/s 이상이면 출입을 차단하도록 설계하였고, 또 동시 체험인원은 15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바로 올라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일 오전 11시에 이용을 하였는데도 10분정도 대기하여 입장했습니다. 주말에는 30분 이상이나 대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 가끔적이면 평일 날 방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장 후 생각보다 높은 높이에 많은 사람들이 주춤 주춤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걷는 구간마다 조금씩 흔들려 당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가느라란 쇠 기둥에 의지해 있다는 것이 몹시 불안했지만, 포스코 기술력이 총 동원되어 흔들려도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이리저리 엿혀 있는 좁은 계단을 오르다 보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아찔한 스릴이 느껴졌고 건물도 후들리고 다리도 후들거리면서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중앙의 루프 구간은 진입이 불가능하여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작가의 설명으로는 의도된 불편함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를 되돌아보며 삶에 대한 성찰과 뒤돌아가는 수고를 하며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에 대해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계부터 디자인까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스페이스 워크 정상에서 포항의 포스코와 멋진 풍경을 감상해보세요. 참고로 110cm이하의 어린이는 체험이 불가하며, 만 12세 어린이는 보호자와 이용해야 합니다. 또 별도의 예약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입장료 발권 따로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포항을 방문하신다면 꼭 스페이스 워크를 추천 드립니다.

모두를 성장시키는 발전적 갈등 관리

슬기로운 직장생활

사람의 생각은 저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며, 공동의 목표 아래 한데 모인 조직 또한 갈등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갈등은 충분히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발전적 갈등 관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conflict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라

갈등은 사람이 모인 어느 곳이나 존재합니다. 개인의 생각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 조직 내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의 목표 달성에 문제가 되는 갈등을 잘 빠르게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막으려면 어떤 사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때 조직의 리더는 먼저 나서서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가 더욱 수월해질 것입니다. 한편 갈등을 숨겨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갈등은 숨길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지며, 서로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작은 갈등이라도 터놓고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면,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 ① 조직 내에 갈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 ② 구성원 간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세요.
- ③ 갈등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형성하세요.
- ④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BOOK 추천 도서



개인과 조직을 살리는
갈등관리 언컨플릭
주충일, 민현기 외 8명 지음, Book Insight
갈등의 긍정적 영향을 확장시키는
조직 관리법



조직갈등관리
트레이닝북
박효정 지음, brainLEO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갈등 관리
워크숍 활동을 담은 책

숨은 갈등 찾기

우리나라의 조직은 갈등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대체로 갈등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갈등이 주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과 리더는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조직 내에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갈등을 찾아내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유형과 사례를 되도록 많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내 소통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유형의 갈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생각이나 의견의 차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갈등이 사소한 감정의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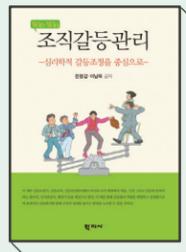


조직 내 갈등을 발견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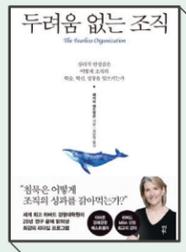
- 1 내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자세를 갖추세요.
- 2 다양한 갈등의 유형과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하세요.
- 3 조직 내 소통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갈등의 모양이 보입니다.
- 4 구성원들의 감정 변화와 부딪침에 대해서도 신경 쓰세요.



BOOK 추천 도서



조직갈등관리
문용갑, 이남욱 지음, 학지사
조직 내 다양한 갈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낸 책



두려움 없는 조직
에이미 에드먼슨 지음, 다산북스
갈등 해결과 성과 달성을 방해하는 조직의 침묵을 관리하는 방법

find



심각한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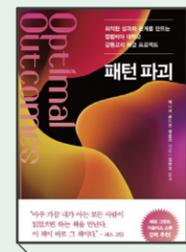
조직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사소한 갈등까지 모두 해결하려 들면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구성원들의 피로감을 키울 수 있죠. 따라서 조직의 성장과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갈등을 선별하고, 이를 되도록 빠르게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연관성이 깊은 두 부서가 서로 미루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를 분배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효율을 높일 수 있죠. 그렇다면 갈등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려면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할까요? 일단 갈등 당사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갈등과 개개인의 감정을 분리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공적인 갈등 해결에 힘을 모아야 모두의 공통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신망이 높은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갈등 해결의 한 방법입니다.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 1 조직 내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 2 갈등 당사자들의 상황과 생각을 명료하게 파악하세요.
- 3 갈등 상황과 개개인의 감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행동하세요.
- 4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신망 높은 구성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BOOK 추천 도서



패턴 파괴
제니퍼 골드먼 웨슬러 지음, 흐름출판
최적의 관계와 성과를 만드는 갈등고리 해결 프로세스



기업을 죽이고 살리는 리더간의 갈등관리
다이애나 맥레인 스미스 지음, 에이콘출판
성공적인 조직 및 갈등 관리를 위한 9단계 실천 전략

solve



CREATIVE COMPANY

지속 성장의 해법은

창의적인 조직문화

다양한 기술의 등장과 발전으로 앞으로의 경영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기업이 경쟁 우위를 점하고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 즉 창의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창의성 확보를 위해 인재를 발굴하고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조직 전체의 창의성을 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다.



01

개인의 창의성



조직의 규모와 성숙도를 중심으로 5단계의 조직 성장 모델을 제시한 레리 그레이너 교수는 “초기 단계의 조직은 개인적인 창의성에 의해 성장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협력에 의한 성장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업들도 초기에는 창업자와 소수 핵심 인재들의 창의성에 의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이 구성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일당백의 몫을 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집중해야 하고, 다양한 역량을 검증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가진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SIMPAC인들은 개인적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창의적 조직에 대해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을까? 이번 설문 중, ‘우리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적극 권장한다.’ 에서 39%가 ‘그렇다’ 라고 답했고,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전정신을 느낀다.’ 에서 54%가 창의적 조직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02

창의성은 노력에 의한 것



교육 심리학자 아킨슨은 “개인간 창의성의 차이는 타고난 지능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힘의 차이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캐나다 맥길대의 다니엘 레비틴 교수는, 어느 분야에서든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1만 시간의 연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훈련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결국 타고난 지능보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SIMPAC인들은 창의적 조직을 위한 학습 구축과 혁신성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조직은 업무 수행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생각한다.’ 에서 ‘그렇다’가 46%, ‘우리 조직은 혁신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조직 발전을 위해 권장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가 47%였다.

SIMPAC에서 창의적 조직을 위해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학습의 기회로 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03

창의적 조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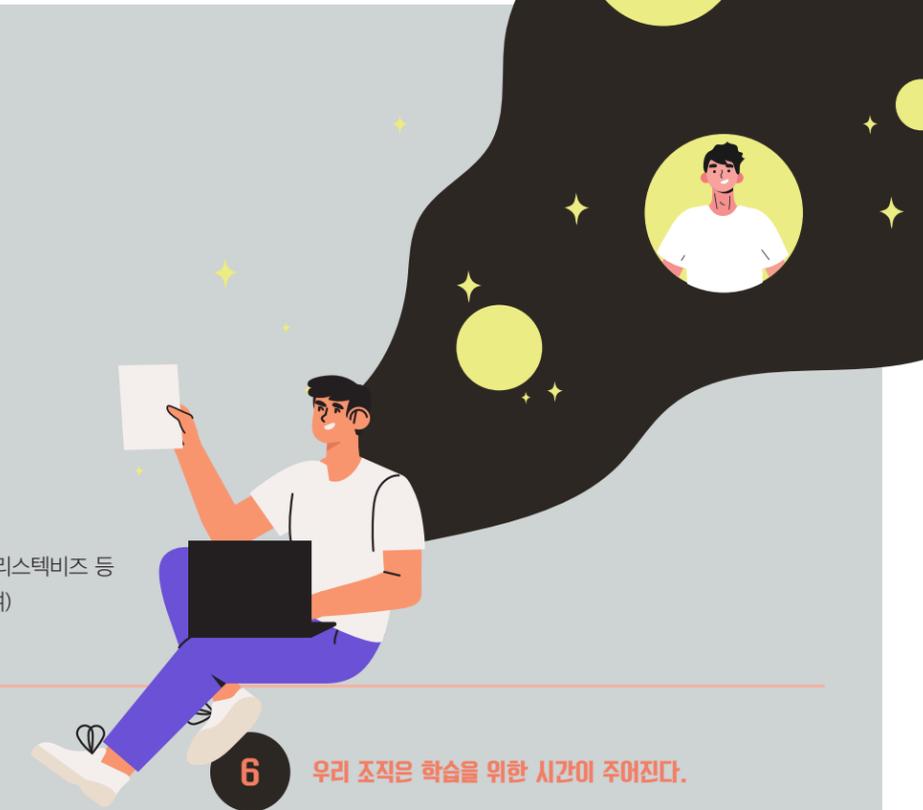
포브스가 선정한 혁신기업 2013년 1위를 차지한 세일즈포스닷컴의 창업자 마크 베니오프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모든 아이디어를 가진 것도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창의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구성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고, 그것에 가치를 두며,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라고 말하며 집단의 창의성을 강조했다.

조직 창의성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협력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길고 고단한 과정이며 활동이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떻게 아이디어를 펼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모를 수 있고,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문화라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쳐 볼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숨어 있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의견의 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창의적 조직이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 자체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조직의 문화에 필요하다.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새로운 일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SIMPAC Now, SIMPAC人 Th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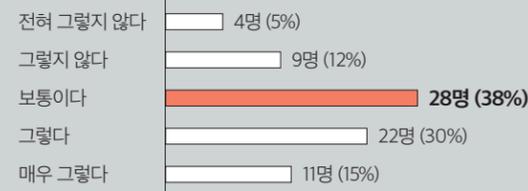
SIMPAC인들은 창의적 조직문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난 2월 23일부터 10일간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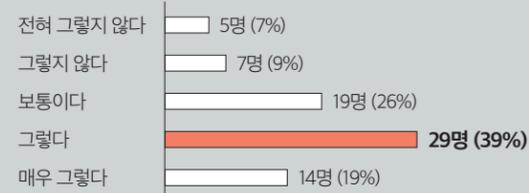
진행: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설문진행
기간: 2022.02.23~2022.03.04
참여: SIMPAC홀딩스, SIMPAC, SIMPAC인더스트리, 리스텍비즈 등 SIMPAC그룹 전 계열사 참여 (총 74명 설문 참여)

Q 창의적 조직문화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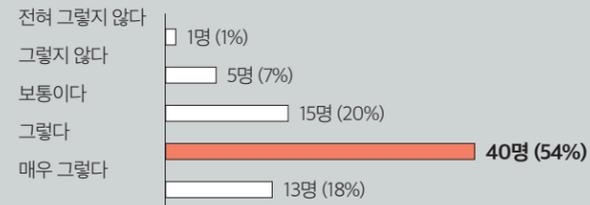
1 우리 조직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교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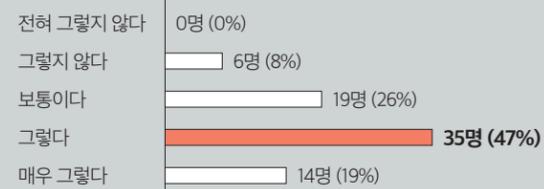
2 우리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적극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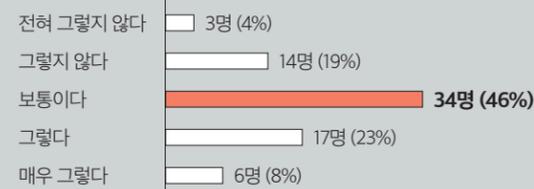
3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전정신을 느낀다.



4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늘 학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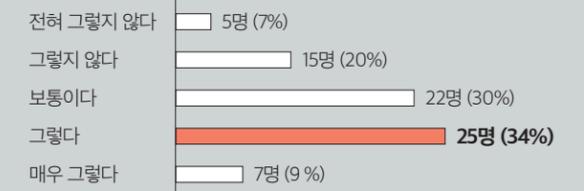


5 우리 조직에서는 창의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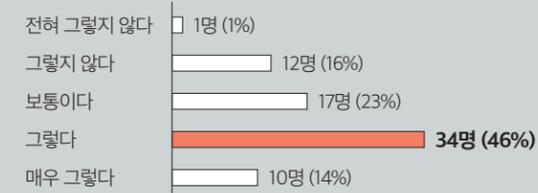


Q 창의적 조직을 위한 학습 구축과 혁신성에 대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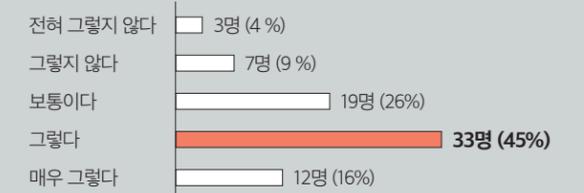
6 우리 조직은 학습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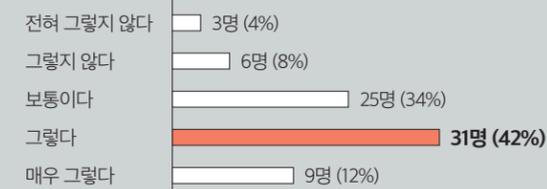
7 우리 조직은 업무 수행 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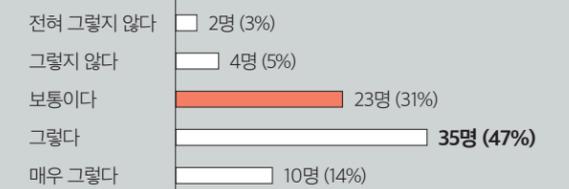
8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며, 올바른 방향의 의견을 개진한다.



9 우리 조직은 새로운 업무 수행 방법을 항상 모색한다.



10 우리 조직은 혁신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조직발전을 위해 권장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SIMPAC Now. SIMPAC人' Think

11 창의적 조직문화와 혁신성에 대한 심팩인들의 다양한 의견

경영사 탐방 및 교류 활동이 필요합니다.

자신있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회 현상과 비교하지 않고, 꾸준한 자기계발과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다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서로 의사를 존중하는 것 만으로도 많은 창의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과 대비했을 때 변화가 느껴지고 있으며, 조직이 창의성과 혁신성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혁신을 리드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먼저 구성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위 직급에 의한 결정이 아닌 하위 직급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개방적인 문화가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시작한 것부터 혁신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외 시간은 업무 관련 스터디 또는 논의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조직의 변화를 위해 개인의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시적인 업무보다는 스스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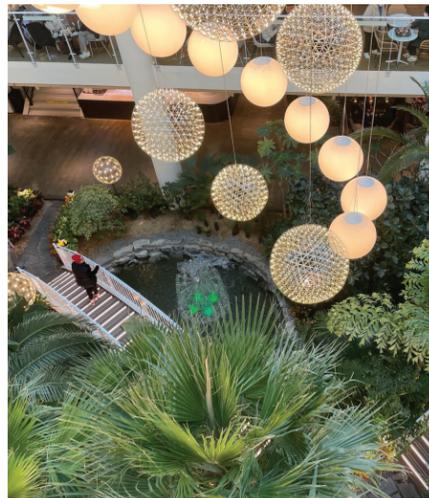
혁신스타그램

SIMPAC인 여러분의 생활 속 장면과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번 호는 '혁신'을 주제로 심팩인들의 일상을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임직원들의 투고를 받아 인스타그램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와 사진은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SIMPAC 프레스BU 품질경영팀 이예지 매니저



사랑하는 가족들과 초록잎이 가득한 장소에 가면 지친 마음도 안정되고 힐링이 돼요.

#식물원카페 #송도 #포레스트아웃팅스 #빵맛집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차유리 매니저



월요일은 등 맛집, 화요일은 하체 맛집, 수요일은 어깨 맛집, 목요일은... 새로운 맛을 깨닫게 해준 그 곳. 오늘도 폭식하러 갑니다~!

#헬스 #맛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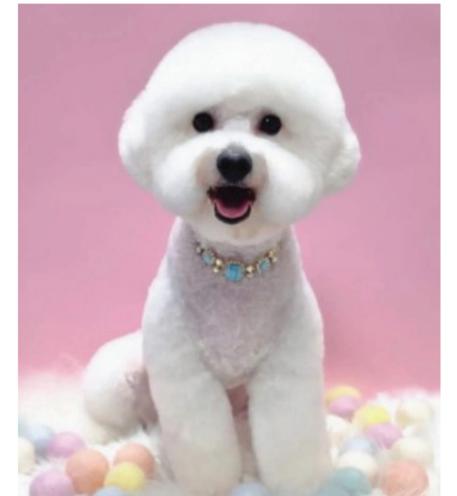
SIMPAC 프레스BU 기계설계팀 김소현 연구원



요리하는 즐거움과 함께 하는 행복을 알게 해 준 ♥

#요리 #생일상 #해신탕 #가족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생산지원팀 문수민 사원



내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준 나의 반려견 "럭키" 곁에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자 ♥

#사랑하는 #나의 반려견 ♥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생산지원팀 문수민 사원



이번에 입사를 하여 열정과 목표가 생겼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장과 함께 심팩도 같이 오랫동안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팩 임직원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열정 #목표

SIMPAC 메탈BU 포항1공장 경영지원2팀 조슬범 사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매번 큰 힘이 되어주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언제나 곁에서 응원할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나를 변화시킨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





Congratulations!

결혼을 축하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
영업팀 윤희철 매니저

우리 걷는 길이 매일 꽃길은 아닐지라도 서로 아끼며 살겠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SIMPAC 메탈BU
포항 2공장 ROLL 영업팀 심성보 과장

SIMPAC을 첫 직장으로 맞이하고 10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한 여자의 남편으로 남은 인생을 굳건히 살아보려 합니다. 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다들 응원해 주실거죠?



우리들의

이야기

탄생을 축하합니다

SIMPAC 프레스BU
고객지원팀 심정래 매니저

느름아~ 아빠 엄마의 두번째 보물~ 건강하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누나랑 사이좋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란다^^ 사랑해~♥

백일을 축하합니다

SIMPAC 프레스BU
생산팀 박결 매니저

채아야! 아빠가 매일 늦게 들어와도 환하게 웃어주는 채아 덕에 힘이 난다. 아빠도 언제나 채아에게 힘이 되는 아빠가 될게! 사랑한다 우리딸!

백일을 축하합니다

SIMPAC 메탈BU 당진공장
생산팀 김성훈 사원

우리집 천사 김이나♡ 우리에게 온지 벌써 백일이러니 믿기지 않아. 앞으로도 건강하게만 자라줘~ 사랑해 이나야~ ♥



하나된 변화, 새로운 도약

Taking the Next Leap Forward as One

SIMPAC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레스 제작, 합금철 개발 및 생산, 철강 유통 및 가공 사업을 주도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의 SIMPAC을 있게 한 원천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먼저 도전하고 그 도전을 이루어 내는 First Mover의 모습을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SIMPAC Group

<p>SIMPAC 홀딩스</p> <p>SIMPAC그룹 지주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 철강 가공 및 유통 	<p>SIMPAC 프레스BU</p> <p>국내 No.1 프레스 메이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식, 유압식, 서보 프레스 생산 	<p>SIMPAC 메탈BU</p> <p>국내 Top-tier 합금철 메이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로망간 및 실리콘망간 합금철 생산 · Roll 가공 및 제조
<p>SIMPAC 인더스트리 산업기계BU</p> <p>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계 및 감속기 생산 	<p>SIMPAC 인더스트리 페로실리콘BU</p> <p>글로벌 합금철 시장의 새로운 리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 	<p>리스테크비즈</p> <p>세계 최고수준의 리사이클링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순도 산화아연 생산